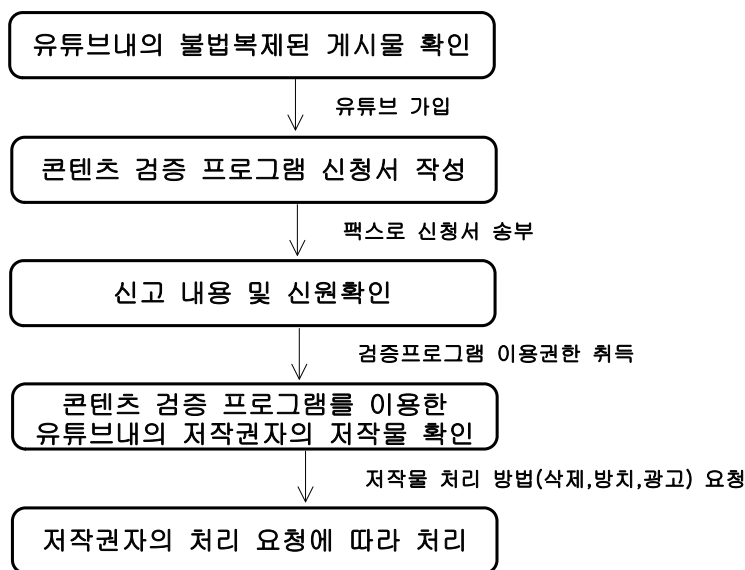


## 유튜브 저작권 검증 시스템의 딜레마

구글(Google)은 2007년 말 새로운 유튜브(YouTube)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이른바 동영상 지문(Video ID)<sup>1)</sup>을 통해 불법 저작물인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올라오는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한 뒤 해당 자료를 추적해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함께 침해 사실을 유튜브에 통보하면, 유튜브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삭제·방치·광고 등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하게 된다.



<유튜브, 콘텐츠 검증 시스템 처리 절차>

구글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저작권침해 동영상의 90% 정도에 대해 삭제 요청 보다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자사의 기술이 유튜브 업로더들에게 창작성을 보장해줌과 동시에 동영상 지문을 제공하는 저작권자들에게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1) 동영상 지문(Video ID) : 참조 파일(영화, 음악 또는 기타 시청각 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에 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 확인 파일로 일종의 구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성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저작권 문제로 구글과 다투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EFF의 Fred von Lohmann 변호사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불법 동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저작권자들은 ISP에 대해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o Greg Sandoval, 『Copyright owners profit from infringing YouTube clips』, Cnet News.com, 2008.08.28.